

No. 2013-21

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5. 20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
: 1분기, 소비·수출 호조로 고성장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1 일본경제지표

□ 주간 시황지표

- 엔화환율 :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지속으로 102엔대까지 엔저 가속
- 장기금리 : 엔저에 따른 기업수익증가, 주가상승 예상으로 주식매입을 위한 국채매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때 0.92%까지 급상승

구 분	5.13(월)	5.14(화)	5.15(수)	5.16(목)	5.17(금)
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	101.52	101.44	102.21	102.15	102.30
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	1,081.94	1,094.62	1,084.83	1,088.72	-
닛케이평균주가(종가)	14,782.21	14,758.42	15,096.33	15,037.24	15,138.12
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%)	0.790	0.845	0.850	0.840	0.795

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2012년도 경상수지는 전년도보다 43% 감소한 4.3조 엔으로 과거 최소
 - 2013년 3월 경상수지는 1.25조 엔으로 2개월 연속 흑자
- 4월 평균 달러당 엔화 환율은 3월 대비 2.9엔 엔저

구분	2011	2012	2013			
			1월	2월	3월	4월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0.3	(2.0)	...			
수 출(천억엔)	653	639(637)	48	53	63	-
수 입(천억엔)	697	721(707)	64	61	66	-
對한국 수출	52.1	49.7(49.1)	4.01	4.25	5.21	-
對한국 수입	32.9	32.8(32.4)	3.12	2.92	2.81	-
직접투자(억달러)	(1,157)	(1,223)	...			
對한국 투자	(24)	(40)	...			
소비자물가(%)	0.0	▲0.2(0.0)	▲0.3	0.1	0.3	-
실업율(%)	4.5	(4.4)	4.2	4.3	4.1	-
경상수지(천억엔)	76.2	42.9(47)	▲3.6	6.4	12.5	-
엔화 對미달러	79.1	82.9(80.1)	89.2	93.2	94.8	97.7
환율 對원화(100엔)	(1,391)	(1,413)	1,197	1,166	1,161	1,148
외환준비(기말, 천억달러)	12.9	12.5(12.7)	12.7	12.6	12.5	12.6
국채금리(10년, 연리%)	0.985	0.560	0.740	0.665	0.560	0.660

주1) ()는 역년(1~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: 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동아시아FTA로 관세율은 어느 정도 인하될 것인가? : TPP의 관세인하효과는 RCEP, 한중일 FTA효과를 하회할 것인가?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5월16일
*출처: http://www.iti.or.jp/column010_5.htm
- 『수입증가의 영향 : 일본제조업기업의 국제화기업과 국내기업의 비교』 경제산업연구소, 5월17일
*출처: 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3j034.pdf>
- 『미·중·일 신체제와 환태평양경제협력의 향방 : 환태평양협력을 둘러싼 미·중·일의 역할 연구회』 아시아태평양연구소, 5월17일
*출처: <http://www.apir.or.jp/ja/research/files/2013/05/doc.pdf>

② 주간경제이슈 : 1분기, 소비·수출 호조로 고성장

□ 1분기 실질 GDP성장을 연율 3.5%

- 일본 내각부에서 16일 발표한 ‘13년도 1분기 실질 GDP성장은 전기 대비 0.9%, 연율은 3.5%로 민간경제연구소의 예상 평균치 2.8%를 상회
 - 2012년도 실질 GDP성장은 1.2%로 3년 연속 플러스로 내수가 경기를 견인
- 일본경제는 ‘12년 가을 경기가 바닥을 친 이후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, ‘13년부터는 민간수요와 수출이 경기를 견인
 - 高주가에 의한 소비자심리 개선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개인소비가 증가하였고, 對미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이 4분기 만에 플러스로 반전
 - GDP성장 기여도는 외수(수출-수입)가 0.4%로 가장 크고, 민간수요가 0.3%, 공적수요가 0.2%
 - 특이사항은 GDP증가의 상당부분이 高주가에 의한 자산효과, 그리고 소비세를 인상을 앞둔 가수요 증가로 주택투자가 1.9% 증가
 - 아마리 경제재정·재생상은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, 내년 소비세를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발언

□ 경기회복의 불안요인도 잔존

- 수출과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불안요인도 잔존
 - 수출은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지역이 감소하였으며, 중국은 예상보다도 경기회복 속도가 늦다는 점 등 불안요소가 있음
- 설비투자가 감소한 점도 경기회복의 불안요인
 - 민간설비투자가 0.7% 감소, 5분기 연속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
 - 다만,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어, 장기간 디플레로 냉각된 기업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나면 지속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
□ 디플레 탈출 목표도 불안

- 명목 GDP성장은 0.3%로 디플레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, 15년 연속 실질치를 하회하는 이른바 「명실역전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

○ 물가하락 압력도 여전함

- 종합적인 물가움직임을 보여주는 GDP디플레이터는 1/4분기 중 전년대비 마이너스 1.2%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
- 이는 엔저로 수입원재료가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, 제품가격에 충분히 전가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된 원인

□ 정부의 성장목표를 달성하려면, 4분기 연속 0.8% 성장이 필요

- 일본정부는 2013년도 경제전망에서 2.5%의 실질 경제성장율을 예상하였는데, 경제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'13년 2분기에서 '14년 1분기까지 4분기 동안 각각 전기 대비 0.8%의 높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분석

□ 엔화 환율의 GDP증대 효과는 2/4분기 이후 본격화될 듯

- 일본은행이 4월에 적극적인 금융완화를 실시한 이후, 엔화 가치는 약 10% 하락하였는데, 전기료 상승 등 마이너스 영향이 있기는 하나 일본경제 전체로는 플러스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
- 내각부는 10% 엔저가 진행되는 경우, 실질성장률은 2013년도 0.19%, 2014년도 0.38%, 3년 후에는 0.58%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엔저는 엔화표시 수출액 증가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2013년도 실질수출을 1.67%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
-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기업소득과 설비투자가 각각 1%, 0.03% 증가하고, 급여 등 고용자보수도 0.28%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초점은 시나리오대로 플러스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인데, 내각부는 엔저로 인한 연료비 증가로 2012년에 해외로 유출된 소득이 18.9조엔으로 과거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
- 엔저가 가속되면 그만큼 소득유출이 증가하고 GDP의 실질가치가 감소
- 달러당 110대엔까지 엔저가 진행되는 경우, GDP를 떨어트릴 것이라는 전망
- 닛케이신문은 디플레 탈출을 위해서는 과도한 엔고는 피해야 하나, 과도한 변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급격한 수입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진단

③ 경제정책동향

□ 제2단계 성장전략 발표

- 아베총리가 17일 제2단계 성장전략을 발표
 - 제2단계 성장전략에서는 규제개혁에 의한 투자확대, 공격적인 농업경영, 대학 개혁, 쿨 저팬 전략 등을 담고 있음
- 아베총리는 행동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하면서,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 세일즈외교를 실시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, 지금까지 논의는 할 만큼 했으니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
- 인프라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전략
 - 기존 인프라에 의료 및 식문화 등 일본의 우수한 시스템과 기술을 수출하여, 현재 10조엔에서 2020년까지 30조엔 달성을 목표
 - 이를 위해 정상 세일즈외교와 국제표준 확보 등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을 강력하게 추진
- 기술혁신
 - 기술혁신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, 친환경 연료전지자동차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
 - 기업별로 규제완화를 인정하는 ‘기업판 특구 창설’, 세계 최초의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
 - 특구제도 활용을 위해 외국기업을 유치
- 대학개혁
 - 향후 10년 이내 세계대학순위 100위권에 10개 대학을 랭크인 시키기 위해 국립 8개대학, 1,500명 정도의 교원을 향후 3년 내에 외국의 우수연구자들로 충원하고 외국인 교원을 증원
- 민간투자 확대
 - 향후 3년간을 ‘집중투자촉진기간’으로 설정하고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
 - 구체적으로 기업이 최신 설비투자를 하기 쉽도록 리스를 활용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, 간병로봇 등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설비투자를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

○ 공격형 농림수산업

- 향후 10년 내에 농업·농촌의 소득을 배증시키기 위해 총리관저에 농업강화 대책본부를 설치, 농지의 집약화와 농산물의 수출배증 등을 목표
- 농지집약은 향후 10년까지 현재 50%에서 80%로 확대
- 농산물수출은 현재 4,500억엔에서 2020년까지 1조엔으로 확대

○ 쿨 저팬 전략

- 일본방문객 수를 현재 800만명 전후에서 2,000만명을 목표로 하여, ASEAN을 중심으로 비자제도를 재검토하는 한편, 일본의 애니메이션 등 방송콘텐츠의 해외방영을 정부가 지원
- 이를 위해, 해외 해외채널이나 방송시스템 확보를 위한 500억엔 규모의 민관 펀드「쿨저팬추진기구」를 창설

□ 일본정부, 자원국의 행정관 육성 지원

- 일본정부가 희소금속과 제철에 사용되는 원료탄 등 중요자원 개발이 예상되는 개도국의 전문행정관 육성을 지원할 방침
- 전문 인력이 부족한 개도국 정부에서 매년 10명 정도를 초청하여 광산개발과 광업 관련 법제도 정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
- 개도국들의 자원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일과 인맥을 만들어 일본의 권익 확보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의도
- 대상국은 일본이 산업용으로 중시하는 광물·에너지 자원개발이 기대되는 개도국에서 일본기업의 진출동향도 고려하여 결정
- 원료탄이 풍부한 몽골과 모잠비크, 희토류와 귀금속 개발이 예상되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동부 국가 등을 상정
- 각국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'14년도에 1차적으로 3~5명을 초청, 수년 이내에 매년 10명 규모로 확대
- 광업기술자의 전문양성과정인 일본 아키타대학에서 수용할 예정인데, 아키타대학은 일본 유일의 광산전문학교로 내년에는 국제자원학부를 신설 예정
- 체재비 등 일본 유학에 필요한 비용은 JICA 등이 부담
- 특히 일본은 개도국 정부의 능력향상단계부터 지원하여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
- 일본 유학경험자들의 인맥을 통한 현지에서의 광부개발의 인허가나 지질을 둘러싼 정보수집력을 높여 권익확보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

4 일본기업동향

□ 일본 대기업들, 미국산 LNG의 안정공급체제 구축

- 미쓰이 물산과 미쓰비시상사, 일본유센(日本郵船) 등이 미국에서 LNG(액화천연가스) 생산에 착수
- 천연가스를 수출용으로 액화하는 미국 에너지업체들의 대형 프로젝트에 총 33%를 투자
 - 미국 센프라에너지가 루이지애나에 계획 중인 LNG생산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는데, 현지에서 조달한 셰일가스 등 기체상태의 가스를 냉각, 운반, 비축하기 쉽도록 액체 상태로 변환
 - 총 사업비는 100억달러로 2017년까지 생산능력 1,200만톤의 액화설비를 건설할 계획
 - 프랑스 대형 에너지기업인 GDF를 포함 일본, 프랑스 4개사가 미국 센프라에너지의 자회사「카메론 LNG」에 출자하게 되는데, 4개사의 출자비율은 합계 50%정도로 일본기업들의 출자총액은 1,000억엔 규모로 추정
- 가스전 개발투자가 중심인 일본기업이 LNG를 일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하기는 처음임
 - 일본 LNG 수요의 약 10%인 800만톤을 공급하게 되는데, 조달수단을 다양화하여 저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됨
-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는 카메론에서 조달한 LNG를 동경전력 등 일본과 아시아지역의 전력·가스회사에 판매할 계획
 - 당초에는 액화 위탁을 교섭했었으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출용 LNG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
- 일본유센은 자사가 조달한 LNG를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인데, 현재 66척을 운항하는 LNG선을 2016년도에 80척까지 늘릴 계획
- 일본기업 3개사가 미국에서 가스전 개발, LNG생산, 수출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하게 됨으로써, 미국산 LNG의 안정적인 對일공급체제가 구축
- 미국정부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등에 가스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만간 이를 완화할 방침인데, 십 여건의 기지건설·수출계획을 심사 중에 있음
 - 이와 관련하여, 미쓰비시상사 등 LNG 취급실적이 많은 기업들이 연합하여 참여하게 되면 사업의 신용력이 높아져 수출허가의 조기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음

5 한국관련위치

□ 한국 편의점, 일본 탈출

- 닛케이신문은 한국 편의점 「일본 탈출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기업이 일본의 노하우를 흡수, 일본기업과 라이벌관계로 성장했다고 보도
 - 일본 패밀리마트는 1990년 한국에 1호점을 낸 이후, 합작파트너인 보광그룹과 점포수를 확대, 작년 6월 시점에서 7,000개를 넘어 국내 최대 규모
- ‘12년 여름 한국에서 일본계 프랜차이즈체인(FC)와 합작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보광이 점포명을 「CU 위즈 패밀리마트」로 변경
- 보광은 패밀리마트에서 독립, 합작기업명을 보광패밀리마트(BGF)에서 BG리테일로 변경하고 점포의 간판도 5월까지 거의 교체
 - 미래 한국형 편의점을 정착시킨다는 것이 변경 이유
- 변경에 따른 패밀리마트의 출자비율은 역으로 23%에서 25%로 증가, 양사는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대로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닛케이는 보도
- 닛케이는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, 포스코 등 과거 일본기업의 기술지원을 받아 한국 기업들이 도중에 독립성을 강화, 일본기업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했다고 보도

□ 스미토모화학 한국에서 터치패널 분야에 적극 투자

- 스미토모화학이 한국에 투자한 컬러필터 제조라인의 일부를 타블렛의 터치패널제조용으로 전환하게 되는데, 투자액은 약 54억엔
- 생산된 소재는 삼성전자에 공급하게 되는데, 생산능력은 연간 수백만대 규모
 - 동 공장에서는 약 320억엔을 투입하여 스마트폰용 생산능력을 3배로 늘리고 타블렛용 분야에도 추가로 투자할 계획